



유성기업 유시영 나와라!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대표단 농성 투쟁

유성지회의 투쟁을 완전히 마무리짓기 위해 대표단 5명(금속노조 부위원장, 대전충북지부장, 충남수석부지부장,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아산지회장)이 10월 15일 기습적으로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대표단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와서 노조파괴 사태를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본사 농성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전면파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 유성 본사를 비롯해 서울 노동청, 국가인권위, 현대차 본사 등 노조파괴 주범, 공범들을 타격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결자해지! 유시영이 해결해라!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유시영 회장이다.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범죄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까지 했다.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노조파괴를 멈추지 않아 엄청난 지탄을 받아왔다. 이제는 풀어야 할 때다. 유시영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최근 유시영 회장이 추가로 기소됐다. 노조파괴로 실형까지 산 범죄자가 또다시 기소된 상황에서 법원의 선처가 있을 수 없다. 이번에도 유시영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유시영 회장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려면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지부의 단결과 연대로 이번에 진짜 끝낸다!

2011년부터 시작된 노조파괴의 기나긴 투쟁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부는 이번 서울사무소 농성이 끝장투쟁이라는 각오로 투쟁을 시작했다. 지회는 매일 전면파업을 통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이제 지부의 모든 힘을 모아 유성투쟁의 진짜 마무리를 함께 만들자. 유성투쟁이 7년을 넘게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연대의 힘이었다. 유성투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모으자. 이번엔 반드시 끝낸다.

11.21 총파업 승리로 가자!

11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지부가 총파업 승리를 위해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이번주부터 전 지회 조합원 교육을 시작으로 LED 차량을 이용한 지역 거점별 선전전, 사업장별 현장순회 및 선전전을 진행한다. 24일(수)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리는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26일과 27일에는 대전과 충북에서 열리는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11월 21일 총파업은 노동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비롯한 노동악법을 전면 개정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부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기해온 만큼 이번 총파업 투쟁을 통해 창구단일화를 완전히 폐기시키는 투쟁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 주요 일정 *

- ☐ 창구단일화폐기 민주당 1인시위
10/24(수) 대전(보수),
충북(콘티넨탈,보수전장)
- ☐ 유성 투쟁승리 결의대회
10/24(수) 14시 유성서울사무소
- ☐ 총파업 승리 금속 결의대회
10/24(수) 16시 서울 국회 앞
- ☐ 총파업승리 지역별 결의대회
10/26(금) 17시 대전 타임월드
10/27(토) 14시 청주 상당공원